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5주년 사업백서:

함께 걸어온 5년, 더 나은 돌봄을 향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5주년 사업백서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5주년 사업백서:

함께 걸어온 5년, 더 나은 돌봄을 향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5주년 사업백서:
함께 걸어온 5년, 더 나은 돌봄을 향하여



Contents

인사말	04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06

PART 1

복지의 현장에
첫 발을 내딛다.

01. 소속시설 운영지원	14
02.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확립 지원	16
03. 소속시설 현장지원 및 상호지원	18

PART 2

현장의 역량을 키우다,
조직과 함께 성장하다.

01.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30
02.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	32
03.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	39

PART 3

변화하는 돌봄,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01. 충남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	42
02. 돌봄사각지대 운영지원사업	49
03. 충남동부돌봄센터	55
04.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59

PART 4

사회서비스,
틈새를 채우다.

01.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	66
02. 긴급돌봄지원사업	77

PART 5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를 향해

01. 공급주체 다변화 시범사업 ‘홍동다움’	82
02.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86
03.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	90
04.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94
05.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 자립 통장’	96

원장님 인사말씀



“도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돌봄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올해, 서비스지원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공공 돌봄의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종사자 역량 강화, 대체인력지원사업, 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들은 모두 돌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발걸음이었습니다.

서비스지원실은 현장의 요구와 변화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공공 돌봄’의 방향을 실천으로 옮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5주년 사업백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남형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지원실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연혁



예산종합재가센터 개소



천안종합재가센터 개소

- 01

충청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0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07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추진단 발족
- 09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1호점) 1개소 운영
- 10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출범식
- 11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관,신월) 운영
- 12

천안종합재가센터 개소
- 예산종합재가센터 개소

- 01

충청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단기) 운영
- 03

계룡 도담어린이집 운영
- 05

공주시 유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07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 09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서산시) 운영
- 11

민간기관 돌봄파트너십 구축사업 운영
- 12

2022년 긴급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 대행협약 체결

- 01

충남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 운영
- 08

2년 연속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09

충청남도 기관 & 기관장 경영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9

- 11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등기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혁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 01

제3대 김영옥 원장 취임
- 08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제3대 김영옥 원장 취임

- 04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공모사업 선정(보건복지부)
- 05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통합
- 09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운영
- 09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령시 더베스트에미지어린이집 개소



충청남도 긴급돌봄지원단 발대식 및 충청남도 긴급돌봄지원사업 운영



태안군아이키움터 운영



도민 복지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01

충청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03

보령시 더베스트에미지어린이집 개소
- 04

충청남도 긴급돌봄지원단 발대식 및 충청남도 긴급돌봄지원사업 운영
- 06

태안군아이키움터 운영
- 09

당진시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10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 11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확대 운영
- 사회복지 경영컨설팅 안전점검 확대 운영
- 중사자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확대 운영
- 도민 복지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관소개

충남도민의 행복을 채우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2019년 충남복지재단으로 첫 발을 내디딘 후, 2020년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로서 충남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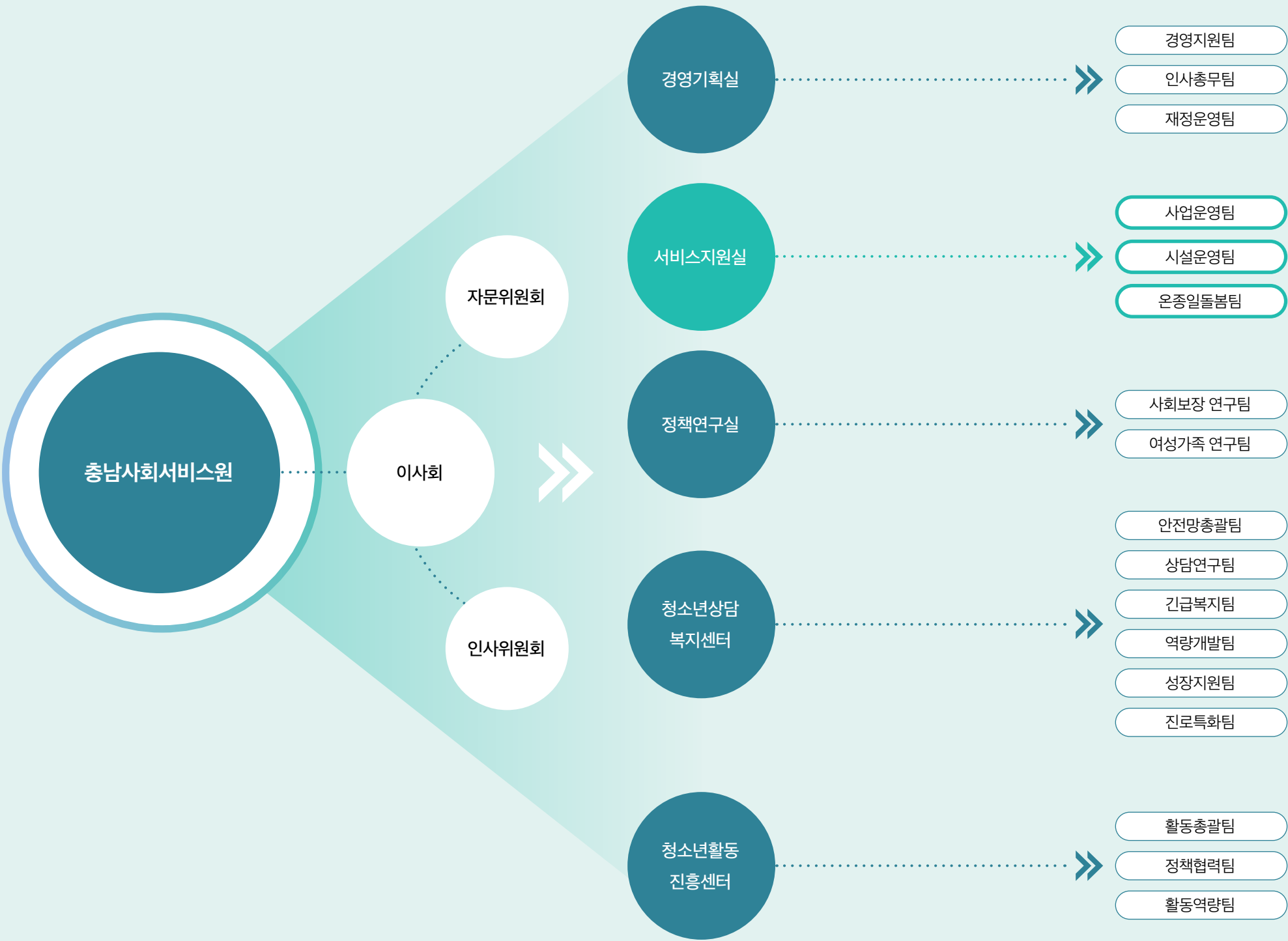
돌봄의 공공성 강화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 운영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충남형 복지정책 연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합니다.
민관 협력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씁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현장의 핵심 주체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의 핵심 주체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략목표 (5대)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효율적 운영	사회서비스 기반 및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	사회서비스 영향력 확대	통합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 시너지 창출
전략과제 (15대)	참여경영과 인재개발 강화	충남 및 시군 맞춤형 연구 및 정책지원강화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편의성 증대	신규 서비스 영역 발굴 및 다각화	통합 돌봄 및 지원체계 설계 및 실행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종사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설계 및 제공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기관 내 협력 및 역할 분담 강화
	ESG중심의 지속가능 경영 체계 확립	품질관리 강화 및 공급자 성장 지원	실시간 소통 및 피드백 체계 강화	이용자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성과 확산 강화

조직도



사업운영팀

- 충청남도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협력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
- 공급주체 다변화사업 “홍동다움”
-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긴급돌봄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지산형성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컨설팅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컨설팅
-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운영팀

- 소속시설 채용·인사·노무 지원
- 소속시설 운영 규정 제·개정 및 관리
- 소속시설 운영평가 및 인사노무 점검
- 소속시설 회계 모니터링, 예·결산 관리
- 소속시설 운영위원회, 이사회 업무 지원
- 소속시설 운영가이드라인 제작
- 소속시설 법정 의무교육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지원
- 돌봄센터 실적관리 및 운영 관리
- 소속시설 협력 연구(학습) 교육
- 시설장·관리자 직원소통과 리더십 증진 교육
- 소속시설 종사자 고충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
- 소속시설 사업평가 및 소진예방 프로그램
- 표준운영운영모델 개발 및 제작
- 소속시설 우수시설 포상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

온종일돌봄팀

- 아동돌봄활동가 파견사업
- 돌봄사각지대 운영지원사업
- 아동돌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체감형 아동통합돌봄정보제공 (아동돌봄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아동돌봄활동가 양성사업 지원
- 학무모 지원사업
- 아동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심리정서지원)
- 온종리아동돌봄통합지원단 실적관리
- 충남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 마을돌봄시설 야간 연장돌봄사업
- 아동돌봄기관 품질관리
- 충남형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농장·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등)
- 함썸충남 마을 돌봄터 운영지원사업
- 335X24 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지원

기관소개



조직도



복지의 현장에 첫 발을 내딛다.

01. 소속시설 운영지원	14
02.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확립 지원	16
03. 소속시설 현장지원 및 상호지원	18

PART 1

01

소속시설 운영지원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시설 운영 지원과 체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근거하여 충청남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개의 시설 및 사업단 운영을 지원해 왔으며, 충남의 사회복지시설 품질을 혁신하고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소속 시설의 사업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전파하여 충남 전역에 걸쳐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속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기능별 업무 지원과 성과 기반의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이 스스로의 강점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시설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위수탁 운영

‘신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정상화’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신규 사회복지시설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회계·인사 등 행정 지원과 더불어 시설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하였습니다.

민간 법인에서 이관된 일부 시설의 경우, 회계 부실이나 운영 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이관 시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계 관리 기준 재정비, 운영 절차 표준화, 인력 관리 체계 개선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밀착 지원에서 자율 운영 기반으로의 전환’

초기 위수탁 설치 단계에서는 시설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회계, 인사·노무, 실적,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별적으로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신규 시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원 방식은 기능별 전문 담당자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 최소한의 기반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시설은 위수탁 기간 만료 후 민간 법인으로 이관하여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 밀착 관리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자율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리 구조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지원 단계



02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확립 지원

책임경영을 위한 토대 구축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행정지원 체계정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회의의 비형식화, 운영의 비전문화, 양식의 비일관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의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실효성 있는 회의 운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우선 회의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회의 소집부터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까지 회의 전 과정을 포함한 표준 회의운영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에 대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회의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수시 검토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회의 자료 누락 및 지연 등 오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순환구조를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평균 9.4회에 달하는 이사회 개최 지원을 통해 회의 자료 오류율은 낮아지고, 작성 소요 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시설의 행정 부담은 경감되고 운영 효율성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책임 있는 운영 기반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 또한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기관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참여와 책임의 거버넌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신뢰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기반 마련

‘소속시설 회계 관리 및 분기별 모니터링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관된 회계기준 적용과 체계적인 회계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회계 인력 간 전문성 편차, 복잡한 지침 해석의 어려움, 반복되는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해 실무의 일관성과 정확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시설별 담당자가



회계지원을 개별 수행하면서 지원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이 담당자마다 상이하고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동일한 회계 이슈에 대해 해석과 대응 방식이 서로 달라 오류가 반복되거나 혼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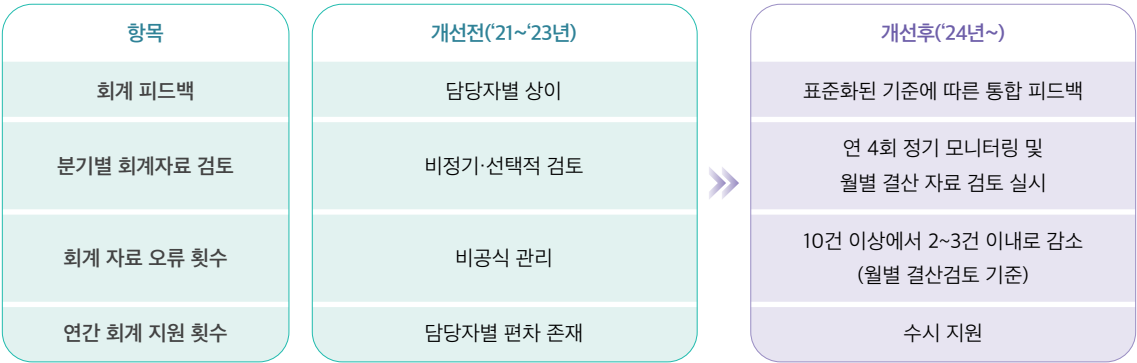
이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4년부터 소속시설 회계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전담 회계 운영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관된 피드백과 실무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계지원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 및 예산안 전담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 항목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개선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침 및 보조금 집행기준 지침의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모든 소속시설에 일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소속시설이 100% 분기별 회계 자료 제출 이행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정산 및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시설 지원 과정에서 자주 질문하는 실무 중심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가이드라인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회계 지원 체계는 사회복지시설 재정 투명성과 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소속시설과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회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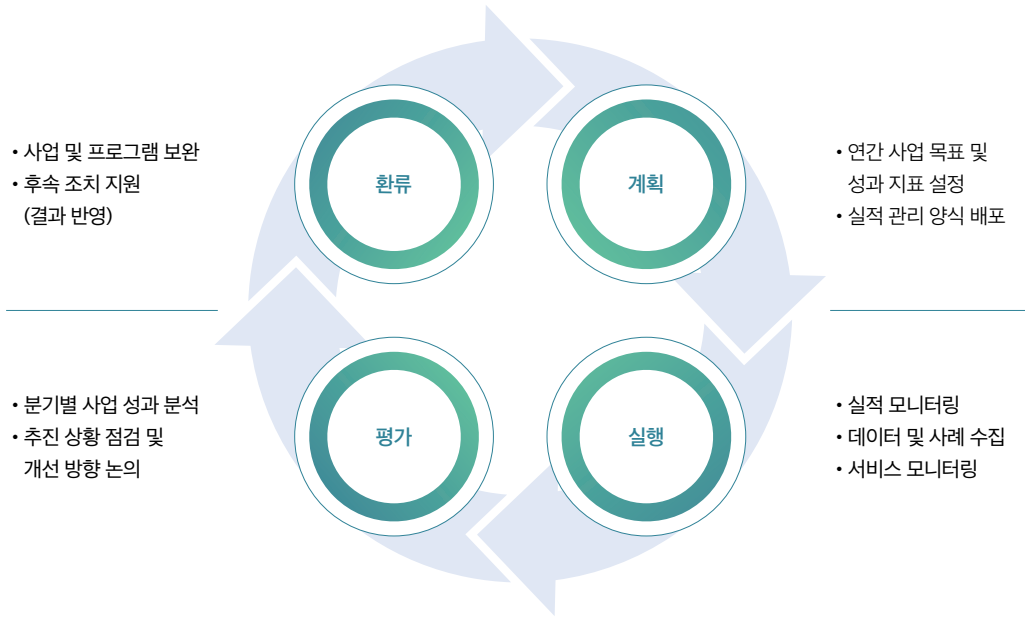
03

소속시설 현장 지원 및 상호지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실적 및 성과 관리 지원

사회복지시설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충남 도민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실적 및 성과관리 체계는 계획(Plan)-실행(Do)-평가(Check)-환류(Act)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체계는 각 시설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실적 및 성과관리 체계

1 계획(Plan):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

맞춤형 목표 설정

각 시설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간 사업 목표와 핵심 성과지표 (KPI)를 함께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의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받으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실적 관리 양식을 배포하여 시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시설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실행(Do):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지원

정기적인 실적 모니터링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현황, 지역사회 연계, 교육 현황 등 정량적 데이터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 등 정성적 사례까지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여 시설 현장의 어려움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현장 밀착형 지원

서류 점검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하여 시설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평가(Check):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논의

다각적 성과 분석

분기별로 수집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함께하는 개선 논의

원활히 진행된 우수 사업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시설과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시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4 환류(Act):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솔루션 제공

평가 기반의 후속 조치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개선, 프로그램 보완, 직원 역량 강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전문성 강화 지원

다음 해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 맞춤형 컨설팅, 우수 사례 공유, 조직문화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얻고, 궁극적으로 충남 지역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소속시설장 및 사업단 분기회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실적 취합과 점검을 넘어, 소속시설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운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영 중인 ‘소속시설장 및 사업단 분기회의’는 각 시설의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입니다.

이를 통해 소속시설 간 응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통체계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시설장 및 사업단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실무 중심의 과정 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 사회복지·돌봄 철학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이와 같은 실적 관리 및 운영 지원 체계를 통해 소속시설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힐링 워크숍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시설 종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힐링 워크숍과 전문 상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높은 정서적 노동과 지속적인 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심리적 소진(burnout)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팀은 소속시설 종사자들이 정서적으로 재충전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힐링 워크숍은 소속시설 종사자들이 일상적인 업무환경을 벗어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요가·싱잉볼과 같은 심신이완 프로그램, 동료 간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등이 함께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서 회복뿐만 아니라 조직 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 휴식 제공을 넘어 장기적인 정서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모임 및 실천연구 운영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천지식 축적을 위해 학습모임 및 실천연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종사자 간 집단 학습과 실천 기반의 연구 활동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종사자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소속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속시설 학습·연구 모임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종사자들이 실제 운영 중 마주하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천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 자료, 실천 리포트, 간단한 효과성 분석 보고서, 매뉴얼 시안 등을 제작해 보기도 하며, 이러한 결과물들은 확산을 위해 타 시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와 성장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위수탁 시설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각 기관은 운영 기반을 확립하며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위·수탁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성과와 경험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낸 기관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소개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한 유구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과 성장 이야기



관련사업
수탁 만료시설

인터뷰 기관
유구다함께돌봄센터

인터뷰 대상자
하나미 센터장

Q 기관 소개와 담당 업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유구다함께돌봄센터는 유구읍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있는 유구초, 구산초, 덕암초 학생들을 주로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장으로서 운영 전반, 교직원 관리, 회계, 안전관리 등 센터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라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학교 돌봄과 저희 센터 돌봄을 모두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Q 센터 설립 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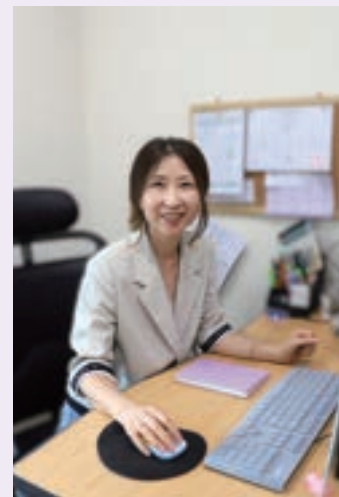
A 센터를 처음 맡았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센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원 20명 중 6명만 있었고, 아이들도 기관 이용에 대한 질서가 없었고 기본 습관도 잘 안 잡혀 있어서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행정 지원,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교육 같은 걸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서, 처음엔 생소했던 시스템도 금방 익힐 수 있었어요. 회계도 마찬가지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을 해주셔서, 저처럼 사회복지 업무가 처음인 사람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익힐 수 있었죠. 또, 갑자기 선생님이 아프거나 할 때 인력 지원도 바로 해주셔서 센터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요.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센터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Q 위·수탁 기간 동안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A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한 종사자 힐링 교육, 1박 2일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은 일상에 지친 선생님들에게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또, 돌봄교사 대상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교육을 받고 나서는 사업계획서나 프로그램 평가서의 질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저희 센터는 소규모라 자체적으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교육을 꾸준히 제공해주셔서 교사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위·수탁 기간 중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센터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또, 우수 프로그램상이나 CS 모니터링 대상 같은 상도 받았고요. 이런 성과의 밑바탕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❶ 우수 소속시설 선정 소감과 비결이 무엇인가요?

❶ 사실 상을 받으려고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들과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 같아요.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컨설팅을 해주신 덕분에, 지역이나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고, 이런 점이 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❷ 위·수탁 종료 후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❶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블라인드 채용 덕분에,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역량만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또, 다양한 행정·회계 경험을 쌓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성장했고, 대표 시설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것도 큰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컨설턴트로서 성장하고 활동하게 된점 또한 보람있는 일 같아요.

❸ 미래 비전과 충남사회서비스원에게 바라는점은 무엇인가요?

❶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지역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더 활성화하고, 공주 내 5개 센터가 연합해서 운동회 같은 큰 행사를 해보고 싶어요.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해주시는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대체 인력 지원, 아동 활동가 사업, 그리고 컨설턴트 연계 같은 지원도 앞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협력이 계속된다면 저희 센터도, 지역사회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Interview

친정같은 존재,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태안군아이키움터와 저를 만들었습니다.



관련사업

수탁 만료시설

인터뷰 기관

태안군아이키움터

인터뷰 대상자

이혜경 센터장

❶ 기관 소개와 담당 업무

❶ 저는 태안군아이키움터 센터장입니다. 저희 기관은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장난감 대여, 부모 교육, 육아용품 소독 행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직원 관리, 사업 기획과 평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까지 두루 맡고 있습니다. 처음 개관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❷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며 느낀 변화와 성장

❶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든든함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문서 하나 만드는 것도, 행정 기준도 잘 몰랐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고, 꼼꼼하게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어 야근이 20시간을 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부 공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을 받았죠. 그 덕분에 행정의 기초가 잘 잡혔고, 지금도 그때 배운 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을 거예요.

❶ 지역사회 평판 및 이용자 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나요?

▲ 충남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신뢰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군청에서도 저희 센터를 믿고 지원해줬고, 이용자분들도 충남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한다는 점에서 더 신뢰를 갖고 이용해주셨죠. 만족도 조사, 보도자료, 리플렛 등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 위탁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직원들도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리플렛에 충남사회서비스원 CI도 넣고, 보도자료에도 항상 위탁기관임을 명시했어요. 직원들끼리도 배지나 신분증에 충남사회서비스원 표시를 달고 다니면서 자부심을 느꼈죠. 지금도 그때의 소속감이 남아 있습니다.

❷ 기억에 남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지원 경험이 있으신가요?

▲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회계 컨설팅과 직원 동아리 모임 지원이에요. 회계 컨설팅을 받으면서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우고, 실제로 컨설턴트가 세 번이나 와서 꼼꼼하게 봐주셨어요. 그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회계 서류를 수정하고,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과 공유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또,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해준 소규모 예산으로 직원 동아리 모임(쓰레기 줍기 등)을 진행했는데, 이게 직원들 간의 화합과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엔 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큰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작은 지원이 저희 센터의 문화와 사업 확장에 큰 영향을 줬어요.

❸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한 운영지원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 실적관리, 운영평가 덕분에 행정의 기준이 명확해졌고, 실적 관리와 회계, 근태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체계가 잡혔어요. 매달 실적보고를 꼼꼼히 하고, 운영평가 체크리스트로 연말마다 직원들이 본인 파일을 제출하고, 근태관리도 매달 내부 공문화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센터의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지금도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들어진 엑셀 틀과 평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군청이나 군의회에서 실적을 요구할 때도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❹ 센터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개관 첫 해였어요. 모든 게 처음이라 방향을 잡기 힘들었고, 문서 작성이나 내부 기준 마련도 막막했죠. 그럴 때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담당자나 선배 기관장님들께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씩 배워갔어요. 또, 위탁이 종료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됐을 때도 그동안 쌓아온 체계와 네트워크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특히, 근태관리나 회계 등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배운 대로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운영하지 못했을 거예요.

❶ 위수탁 기간을 돌아보며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기관장으로서의 성장과 함께 가는 경험이에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라 기관장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어요. 근태관리, 리더십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금도 그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친정 같은 존재예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관이 잘되길 바라기 때문에 가능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법인과는 다른점이 다른 법인은 기관장 회의라든지 기관장 교육 기회가 적어요.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관장 관리를 통한 성장을 지원해줘요

❷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바라는 점과 태안군 아이키움터의 미래 비전

▲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소속시설과 기관장, 직원 모두를 세심하게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시설운영팀의 노고가 더 빛나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태안군아이키움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아이들과 가족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정 같은 기관이 되고 싶어요. 결혼과 출산, 육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 모두가 신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현장의 역량을 키우다, 조직과 함께 성장하다.

01.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30
02.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	32
03.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	39

PART 2

01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 교육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교육 기반 마련

사회복지 교육 협의체 구성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5년 2월 12일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충남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훈련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사회보장연구팀 조운진 연구위원)를 추진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라 그동안 세 개 기관에서 각각 교육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5년도부터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수요자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기획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매년 종사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수요조사 및 사회복지 교육 협의체 회의 결과 힐링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하여 2025년 6회→13회로 116% 확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특성상 3교대 근무 및 충청남도의 넓은 지형으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찾아가는 기관 맞춤 힐링day 운영 및 영화관람권 제공 등으로 자율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매월 월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공연(뮤지컬, 영화관람) 및 충남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만족도 4.85점/5점, 96.67점/ 100점으로 종사자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지방이라서 문화생활이 쉽지 않은데 좋은 뮤지컬을 보게 되어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오랜만에 업무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직무교육을 운영해오다 2025년부터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리더 역량강화 교육, ▲최고중간리더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 홍보, ▲사회복지 실천가를 위한 글쓰기 클래스 운영,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진입 기초·심화 교육, ▲장애인가족 동료상담가 기초·심화과정 운영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최소 3회기, 최대 7회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교육의 단계를 넘어 워크숍과 컨설팅으로 확장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서비스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장
현장의 역량을
키우다,
조직과 함께
성장하다

02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컨설팅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년간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본 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인사노무, 재무회계, 법률지원, 시설평가, ESG경영, 홍보전략, 사업 수행 총 8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욕구와 필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문가를 매칭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섬세한 매칭 작업을 거치며, 각 기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집합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사후 컨설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 컨설팅’은 유사한 관심사나 문제의식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 컨설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은 기관별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형태로, 8개 전문 분야 중 기관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나 취약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매칭되어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매칭된 전문가는 기관의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2025년부터는 컨설팅의 지속 가능성과 사후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후 컨설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컨설팅을 넘어, 이후의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기관의 실질적인 성장과 자립적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넘어 성장을 이끈다

경영컨설팅 사업은 기관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과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기준 컨설팅 참여 기관의 평균 만족도는 97.12점에 달했으며, 업무역량 향상도는 평균 78.14%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본 사업에 재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영컨설팅	91회	14회	48회	64회	71회

Interview

컨설팅이 만든 변화, 현장의 목소리로 듣다.



관련사업

사회서비스제공기관 경영컨설팅

인터뷰 기관

보령시가족센터

인터뷰 대상자

강혜정 센터장

Q 이번 경영컨설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주요 기대사항은 무엇이었나요?

A 보령시가족센터는 지역 특성과 다양한 가족 지원 역할을 반영한 실질적인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특히 기존의 미션과 비전이 다소 형식적으로 느껴져, 기관의 실제 운영 방향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센터장으로 부임했는데, 그동안 시설 전반을 파악하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를 느껴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컨설팅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Q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객관적인 지표 기반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주관적 서술이 많았는데, 컨설팅을 통해 각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미션·비전 재정립을 위한 TF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설정한 미션·비전은 사업 운영에 있어 직원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TF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팀 간 소통과 협업도 강화되었어요.

전 직원이 참여한 2번의 전체 회의와 5번의 TF 회의를 통해 새 비전을 완성했고, 현재는 변경을 위한 서류 작업과 직원 대상 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Q 컨설팅을 받은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처음엔 ‘교육’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다소 귀찮아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컨설팅이 시작되면서 모두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특히 우리 기관에 맞춤형으로 진행된 컨설팅이라는 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3회기로는 너무 짧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미션과 비전을 함께 세우는 과정에서 직원 간 결속력도 생겼습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 방향을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도 생기고 직원 간 관계도 훨씬 돈독해졌고요.

Q 다른 기관에 이 컨설팅 사업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A 이 컨설팅은 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 체계를 수립할 수 있고,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한 직원들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영컨설팅에 참여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컨설팅은 단기적인 결과뿐 아니라 센터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내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었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충남사회서비스원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현장과 함께 만드는 미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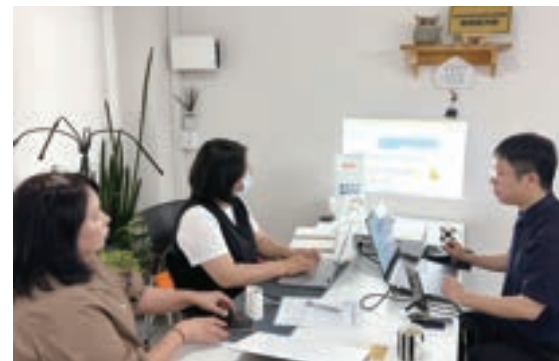
최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대두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도입, 데이터 기반 경영 등의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여 컨설팅 영역을 확장하고, 심층 컨설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컨설팅 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과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사업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3개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정책은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와 시장 중심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2개소 6회	5개소 15회	8개소 24회
영역	품질평가	노무관리, 재무회계, 사업운영	인사노무, 재무회계, 품질평가, 홍보전략, 사업수행



2장

현장의 역량을
키우다,
조직과 함께
성장하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바우처 제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은 인사노무, 재무회계, 품질평가, 홍보전략, 사업수행 총 5가지 영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기관의 욕구를 반영하여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의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맞춤형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며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더 많은 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평가 컨설팅을 받은 2개소의 기관이 이전 평가 D등급을 받았으나, 컨설팅 이후 실시한 모의평가 B등급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참여기관 5개소의 평균 종합만족도는 99.61점으로 컨설팅 운영내용과 직무도움 정도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기관 경영 환경 개선, 사회서비스원의 진흥 및 거점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한 환경 지원 안전컨설팅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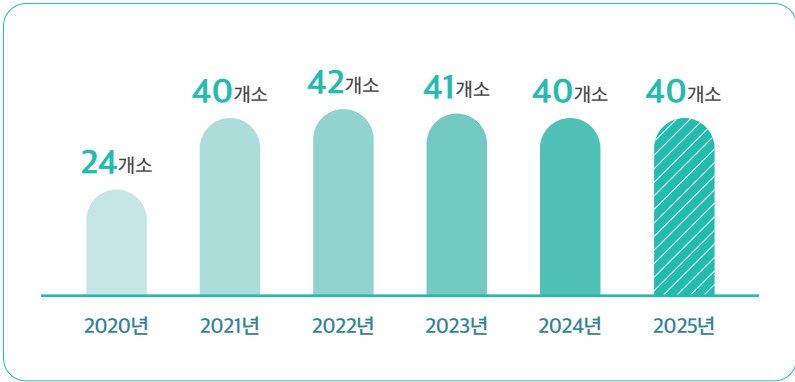
충청남도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자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하고 취약한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소방·건축·전기 등 분야별 시설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

2020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소방, 가스, 전기 등 주요 분야의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퇴직 전문가 인력을 점검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자체점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전 컨설팅 지원 실적





2021년에는 점검 대상 기관 수를 40개소로 확대하며 더 많은 시설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 규모를 확장하였고,
 2022년에는 42개 기관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소화기, 감지기, 비상조명등 등 필수 소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안전용품 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민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소방용품 설치·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화재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건축·가스·위험물 등 분야별로 전문기관이 참여한 통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후 모니터링과 추가 안전물품 지원을 병행하여, 점검 이후 개선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 및 안전조치의 지속성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부평가 안전점검표'를 적용한 표준화된 점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관 간 점검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 중심의 점검을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 컨설팅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기관들이 법적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3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대응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원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평가 대응이 처음이거나 이전 평가 결과 미흡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평가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설명회를 통한 지표 이해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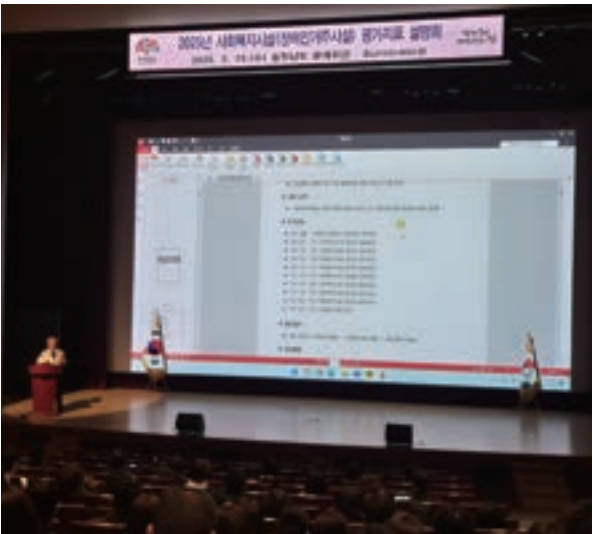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24개소 시설에서 총 81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충청남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평가 대상인 4개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총 80개소 206명의 종사자가 참석하였고, 실무 중심 설명은 지표 이해도와 준비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평가 사전/사후 컨설팅으로 평가 대응력 제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평가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지표와 서비스지표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서류작성이 미흡하거나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시설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평가지표 해석, 자가점검표 작성법, 제출서류 준비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장 밀착형 지원은 시설의 실질적인 평가 준비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평가 대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도민 복지 체감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돌봄,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01. 충남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	42
02. 돌봄사각지대 운영지원사업	49
03. 충남동부돌봄센터	55
04.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59

PART 3

01

충남온종일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아동돌봄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2024년 충청남도 풀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조례(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충남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에서는 아동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 학교돌봄터 등)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심리지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성과

아동돌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와 관련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 및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종사자 심리지원 추진성과

아동돌봄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동돌봄기관 맞춤형 컨설팅

아동돌봄기관 인큐베이팅,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한 기관을 지원하고, 역량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첫 컨설턴트 13명이 양성되었고, 프로그램 운영·회계·인사·노무·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기관 맞춤형 컨설팅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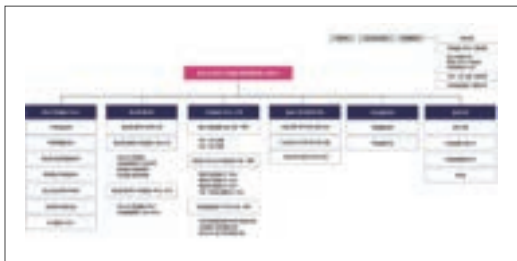
2024년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있는 지역아동센터보다 별도의 컨설팅이 없는 다함께돌봄센터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인건비 지급 관련 내용으로 원천세 신고에 대한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의 급여 외 처우개선비 제수당 포함 컨설팅을 진행하여 8월

급여 지출 시 반영하도록 하였고,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지침 내 아동관리일지·출석부 등 서식을 컨설팅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회계·인사·노무·프로그램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아동돌봄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4년도 컨설턴트 교육에 이어 심화교육으로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신청 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는 컨설턴트 파견으로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채널 일원화 ‘아이충남’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아동돌봄통합플랫폼은 파편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채널을 일원화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돌봄서비스 신청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은종일아동돌봄지원단에서 충청남도와의 협의회를 2024년 4월부터 구축하였고, 2025년 4월 22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아동돌봄통합플랫폼은 크게 충남 아동돌봄 서비스 소개·충남형 플케어 정책 소개·아동돌봄서비스 신청·돌봄시설 맞춤형 정보·아동돌봄정보와 알림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돌봄 신청, 지역별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 정보 등 학부모와 아동돌봄기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플랫폼입니다.

2025년 4월에는 15개 시군별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통해 플랫폼 사용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시군 아동돌봄기관 종사자 408명, 시군 담당공무원 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은 돌봄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운영·관리와 고도화를 추진하며, 돌봄기관 및 학부모의 의견을 플랫폼 구성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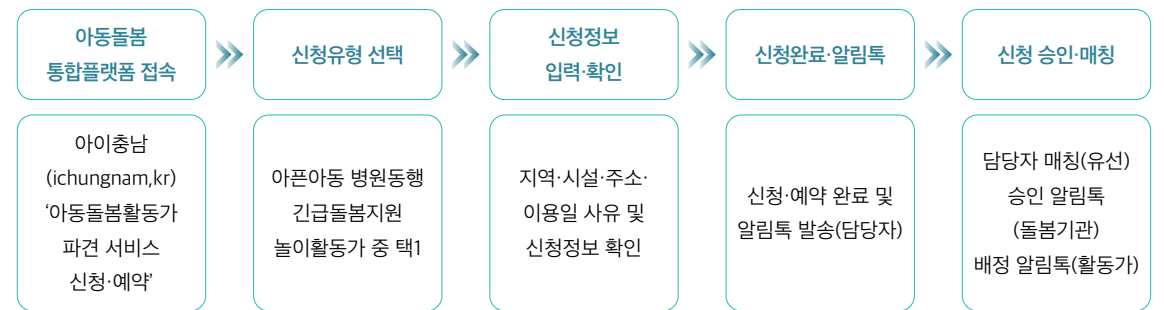
돌봄전문인력, ‘아동돌봄활동가’ 양성 및 파견

공적돌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25년 2~3월 아동돌봄활동가가 양성되었습니다. 3월부터 아동돌봄기관으로 파견되어, 종사자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활동가는 총 4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거친 돌봄전문인력입니다. 아동발달과권리·인지학습·놀이활동 등 돌봄인력으로 꼭 필요한 과정을 거쳐 면접으로 총 90명의 활동가가 양성되었습니다.

아동돌봄기관에서는 종사자 연차·교육·출장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아이충남 플랫폼을 통해 놀이활동·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픈아동이 발생하여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돌봄기관과 학부모님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파견이 시작되어 10월 31일 기준 2,203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시·군 활동가 90명 중 6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관련사업
아동돌봄활동가 양성 및 파견

현장의 목소리로 듣는 아동돌봄 이야기,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한행숙’ 아동돌봄 활동가

Q 아동돌봄활동가로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A 출산 후 아이들을 양육하며 경력단절을 겪었어요. 다시 취업을 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가 되며 돌봄교실에서 당첨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어요. 우연히 아동돌봄활동가 모집 공고를 보고 취지가 너무 좋았고 저와 같은 상황의 워킹맘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활동 중 보람을 느끼신 적은 언제인가요?

A 만나자마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아이들이 오늘은 어떤 재미난 것을 하냐고 물을 때 보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선물이 있다며 고사리손으로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는 사랑스런 마음을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기특해요.

Q 아동돌봄활동가가 아동돌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아이들이 안전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적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아동의 성향과 권리를 존중해주며 또래간의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주도적으로 판단하며 해결 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관련사업
아동돌봄활동가 양성 및 파견

현장에서 배우고, 아이들과 성장하는 ‘이재숙’ 아동돌봄 활동가

Q 아동돌봄활동가로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A 자식을 키워 다 분가시키고 나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사회 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우연히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아동돌봄활동가 모집 공고를 접했습니다. 순간, 초고령화 사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구나! 하는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인터넷 접수에 성공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며 합격의 기쁨도 얻었습니다. 아이를 키운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여 아동돌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활동 중 보람을 느끼신 적은 언제인가요?

A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열어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가 다가와 기대거나 ‘선생님 저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라고 고민을 이야기할 때,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선생님 드세요’ 하고 손에 쥐어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마트에서 나오다, 맞은편에서 센터 아동이 부모님 차량에 타고 창문을 열며 ‘선생님~!’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Q 아동돌봄활동가가 아동돌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운데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과 배려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그 속에서 규칙과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배우게 합니다. 갈등과 문제 해결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꿈나무들이 바른 인성과 자립심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이용기관1 홍동마을지역아동센터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홍동마을지역아동센터입니다. 2024년 1월에 개소한 센터로 19명의 아동을 생활복지사 한 명과 센터장이 돌보면서 일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유치부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있는 센터로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하는 아동도 있어서 선생님 한 분으로는 아이들에게 끌고루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활동가 선생님을 파견하는 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어 4월부터 이용했습니다. 다행히 돌봄 활동가 선생님을 요청할 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놓고 휴가와 교육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방학에는 오전부터 늦게까지 돌봄을 하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돌봄활동가 선생님 파견 사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용기관2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저는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차암동 효성해링턴 플레시아파트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장과 돌봄교사 2명이 함께 40명의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돌봄도 시작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필요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중순,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돌봄교사 한 분이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장기간 회복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당장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오후 돌봄 시간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인데, 이를 비워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충남 아이돌봄 플랫폼을 통해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아이충남”을 통해 아동돌봄활동가를 요청했고, 6주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돌봄활동가는 출결 확인, 간식 제공, 프로그램 활동 보조, 정리 정돈, 귀가 지도 등 돌봄교사의 역할을 빈틈없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함께해주신 덕분에, 저희 센터는 장기적인 공백을 무사히 메울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만약 긴급 돌봄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고, 저희 센터도 운영에 큰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아동돌봄활동가의 파견은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02

돌봄사각지대 운영지원사업

초등아동 틈새돌봄, 아침돌봄 지원

2024년도 충남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사업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 ‘8~9시’로 나타났고, 충남온종일아동돌봄 통합지원단에서 실시한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아침돌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돌봄사각지대 운영지원사업(온실)’이라는 이름으로 아침·야간·주말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내 초등자녀 가정 맞춤형 틈새돌봄으로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4년 7월부터 각 아동돌봄기관·학교에서 틈새돌봄이 필요한 초등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식제공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돌봄사각지대 운영지원사업(온실) 운영 현황)

돌봄유형 아침돌봄	돌봄기관 안면지역아동센터	연계학교 안면초등학교	추진실적 (누계)	78건 887명
	돌봄기관 신월다함께돌봄센터	연계학교 신월초등학교	추진실적 (누계)	110건 430명
돌봄유형 야간돌봄	돌봄기관 하늘꿈이자라는집 지역아동센터	연계학교 -	추진실적 (누계)	119건 1,153명
돌봄유형 주말돌봄	돌봄기관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연계학교 -	추진실적 (누계)	38건 193명
실적합계				345건 2,663명 ※ 간:운영일수 / 명:누적인원

틈새돌봄에 대한 학부모·지자체 등 사업지속 요청으로 2025년에는 돌봄기관 8곳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아침돌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기에, 25년도는 아침돌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적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여름 방학중 돌봄도 시행하였으며, 아산·태안에 있는 학교 2개소에서도 아침돌봄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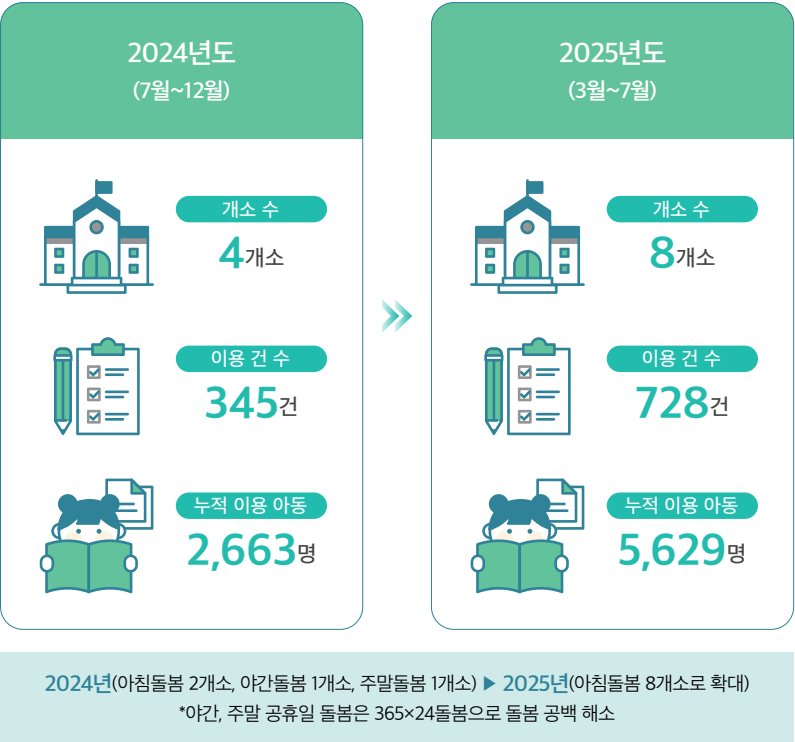
아침돌봄은 출퇴근 등의 사유로 초등자녀를 이른 오전에 맡길 곳이 없는 부모님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확대시행 하였고, 천안·아산·태안·논산·당진 6개 시군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용해주셨습니다.

공적돌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꿔줄 수 있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2025년 돌봄사각지대 운영지원사업(온실) 운영현황

돌봄유형 아침돌봄	돌봄기관 신월다함께돌봄센터	연계학교 신월초등학교	추진실적 (누계)	198건 2,970명
	돌봄기관 강남다함께돌봄센터	연계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추진실적 (누계)	200건 3,000명
	돌봄기관 안면지역아동센터	연계학교 안면초등학교	추진실적 (누계)	200건 3,000명
	돌봄기관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연계학교 -	추진실적 (누계)	200건 1,200명
	돌봄기관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연계학교 -	추진실적 (누계)	185건 740명
	돌봄기관 행복이다함께돌봄센터	연계학교 -	추진실적 (누계)	190건 600명
	돌봄기관 논산동성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연계학교 -	추진실적 (누계)	198건 2,970명
	돌봄기관 당진시송악다함께돌봄센터	연계학교 -	추진실적 (누계)	180건 2,700명

실적합계 1,551건 | 17,180명 ※ 간:운영일수 / 명:누적인원



학부모1

안녕하세요. 차암초등학교 안*일 엄마입니다.

처음에 아침돌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차암초등학교 입학전 학교에서 아침돌봄을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에서 이번에 처음 진행한다고 신청해보라는 문자를 받고 아침돌봄 및 등원을 해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전 아이 혼자 등원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설렘보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직 작은 손으로 가방을 메고 혼자 학교에 간다는 것이 부모로서 참 마음이 쓰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준비해서 피곤할텐데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아침돌봄 선생님께서 반갑게 아이를 맞이해주시고,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센터에서는 단순히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살피고, 책도 읽어주고, 가벼운 놀이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고 형, 누나들도 있어서 덕분에 아이는 등교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아침마다 짜증을 내던 모습 대신 웃으며 스스로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였으면 어쩌면 두려웠을 등곳길. 이젠 아침돌봄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 형님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에 저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쫓기듯 뛰어다니던 제 출근길도 한결 여유로워졌고요.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아침 돌봄은 단순한 통학 지원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따뜻하게 여는 '마음의 준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시간이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아침돌봄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 아침 돌봄은 단순한 통학 지원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따뜻하게 여는
‘마음의 준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시간이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

학부모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한 박*혁 엄마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보니 취업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오후 늦게까지 봐주셔서 출, 퇴근시간이 맞아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 훨씬 빨라진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서 등교뿐 아니라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출근시간이 빠르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돌봄터의 아침돌봄을 이용하게 되어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에 아이랑 기뻐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가 돌봄터 다니는걸 의외로 너무 좋아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

집에 오면 재잘재잘 하루 있었던 일을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겠지요?

또한 처음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지낸다는 부분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침돌봄(온실) 프로그램중 하나인 바름노트쓰기 시간은 우리아이가 오늘 해야 할 일, 오늘의 감사, 독서 등을 적어 보며 감정도 컨트롤 해보고,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시작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이가 연필을 바르게 잡지 못해 걱정중 하나 였는데 선생님과 바름노트를 쓰며 어떻게 하면 나아질수 있을지 공유도 같이하며 좀 나아진 우리 아이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급한성격인 우리아이가 공동체 안에서 바른생활을 할수 있도록 마음도 잘 읽어주시고 인도를 잘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에게 관심이 많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돌봄을 마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오후 돌봄까지 연계가 되고 있어서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이가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는 분위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하며 보내고 있고 또 제일 걱정했던 긴 방학기간에도 항상 밝은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침돌봄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케어팜·치유농장 프로그램 지원사업

충남도는 도시 및 농·어촌이 복합적인 지역으로, 농작물을 활용한 케어팜·치유농장이 다수 있습니다. 서비스원 정책연구실에서는 「충남 농촌치유농장 운영성과 분석 연구」와 「충청남도 케어팜 연계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러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24년 시작된 본 사업은 이 점에서 착안하여 도내 시·군별 케어팜·치유농장을 연계하여 아동돌봄기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ESD(지속가능발전교육)에 근거한 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농장 5곳과 돌봄기관 15곳에 4회기씩 총 60회의 농장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장에 있는 작물을 활용한 만들기와 여러 동식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친해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정서적인 힐링을 경험하였습니다.

24년도 만족도 및 기관요청에 힘입어 25년도에도 농장 10곳과 16곳 96회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6개 시군의 케어팜·사회적농장·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며, 돌봄기관별 프로그램 6회기(농장 프로그램 4회기, 충남아동권리센터 연계 기후위기 교육 2회기)가 진행되었습니다.



03

충남동부돌봄센터

사람과 서비스를 잇는, 충남동부돌봄센터

충남동부돌봄센터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설치하여 2020년 12월 개소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맞춤 지원하는 고난이도 돌봄

충남동부돌봄센터의 핵심 사업인 방문요양서비스는 특히 고난이도 돌봄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관에서 기피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안정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돌봄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다가가는 든든한 공공안전망

긴급돌봄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혹은 제도권 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처럼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병원





동행, 재가 돌봄,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 30일, 월 72시간 이내로 지원합니다.

충남동부돌봄센터는 읍면동 통합돌봄지원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돌봄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적시에 돌봄 인력을 매칭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서비스원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모두의 인지 건강을 지키는, “인지 교구 대여 사업”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족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충남동부돌봄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센터 최초로 인지 교구 대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인지 교구, 왜 중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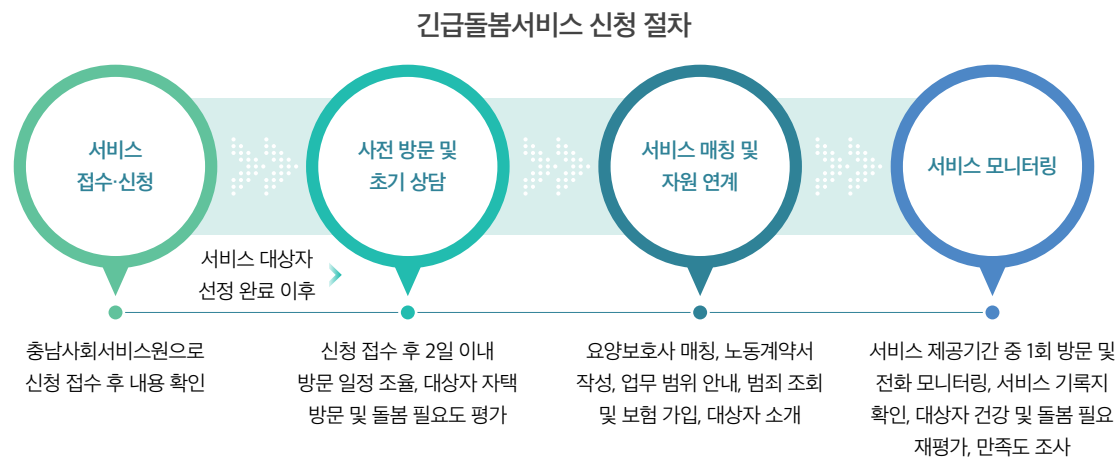
인지 교구는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인지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교구 활용은 어르신들의 두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근육 발달, 집중력, 협응력 향상을 돕는 교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충남동부돌봄센터 인지 교구 대여 사업의 특별함

본 사업은 기존 재가 돌봄 서비스가 가사 지원에 치중되어 있던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충남동부돌봄센터는 단순히 교구를 대여하는 것을 넘어,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들이 가격 부담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인지 교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여 및 교육을 함께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노인 돌봄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와 인지 기능 저하 어르신들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의 인지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돌봄 인력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

어르신들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충남동부돌봄센터는 돌봄 종사자분들의 전문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교육과 정서 지원 워크숍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고충 상담 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충남동부돌봄센터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서비스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돌봄 인력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충남동부돌봄센터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04

충남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함께 성장하는 충남형 사회서비스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단은 도민의 삶의 질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지자체와 협력으로 구축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운영 지원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충청남도 및 도내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태와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실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담당자들의 행정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운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과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촘촘한 사회서비스와 믿음 주는 품질관리

지자체 현장조사 지원 및 사후관리로 제공기관 투명성 확보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서비스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기관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부정사용이나 운영 미흡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조사와 시·군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조사 전 공무원 교육과 제공기관 컨설팅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식을 함께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후에도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재점검을 실시해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도민이 언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회서비스의 높은 품질은 개별 기관이나 종사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에게 편리한 정보 접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THE행복해U」를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위치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 제공기록지 디지털화와 전자서명,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 푸시 알림을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종이 중심의 행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을 고도화하고, 제공기관 행정업무 지원과 부정수급 예방, 이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단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무 중심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종사자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강화

- 의무화된 기관 등록 전 설명회: 제공기관 등록 안정성 확보
- 현장밀착형 교육 커리큘럼: 교육 선호도 높은 과목 편성
- 운영 컨설팅 지원: 지침, 회계·서류 작성, 현장조사 사후 관리
- 종사자 교육: 전문기관 협업 교육 확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충남 지역사회서비스 앱 「THE행복해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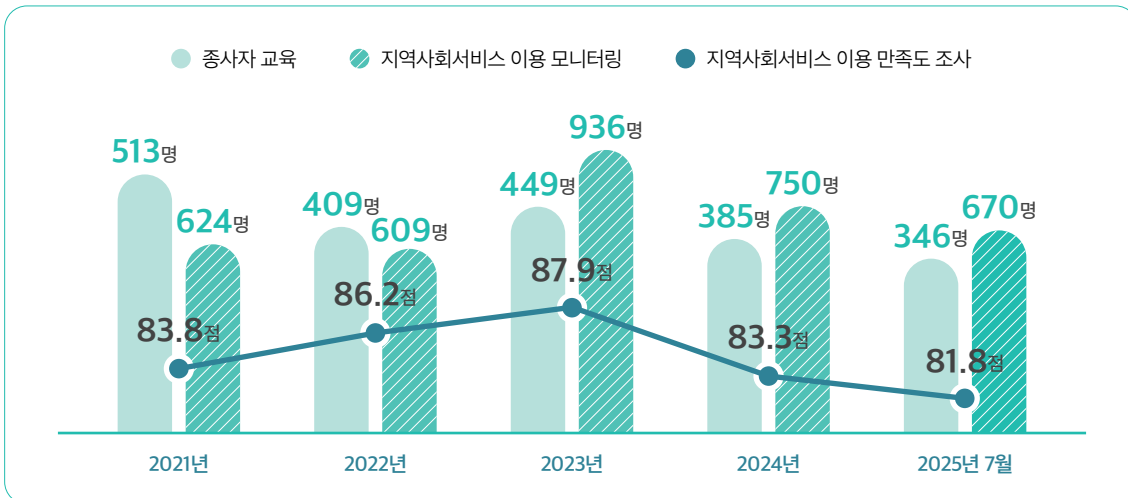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관리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곧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결되기에,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공통·직무교육, 온라인·대면 혼합교육,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 제공기관을 위한 등록 설명회, 신규·운영 미흡기관 맞춤형 컨설팅, 신규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단계별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밀착형 지원은 제공기관의 자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의 체계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빛나는 발자취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복지 발전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요 사업 실적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과 더 높은 서비스 품질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충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충남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을 넘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회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연도	표창명	주요 성과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돌봄 사회서비스 개발 • 충남 지역사회서비스 성과관리 모형 개발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2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종사자 전문성 향상 •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률 및 집행률 관리를 통해 예산관리 효율화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문제점들을 유형화 및 대응 방안 모색 • 지역사회서비스 단가 현실화로 인건비 개선을 도모
2024년	충청남도지사 표창	• 서비스 이용정보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연계로 사업 활성화 • 심리상담서비스 가격탄력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3장

● 변화하는 돌봄,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틈새를 채우다.

- 01.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 66
- 02. 긴급돌봄지원사업 77

PART 4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 빈틈없는 돌봄 현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현장! 이곳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곳이지만, 우리 종사자들에게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휴가가 필요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상치 못한 공백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 때문에 휴가와 교육을 보장받지 못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가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센터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고, 돌봄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드리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신청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파견하며, 공백없는 돌봄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체인력 파견, 현장의 안정감을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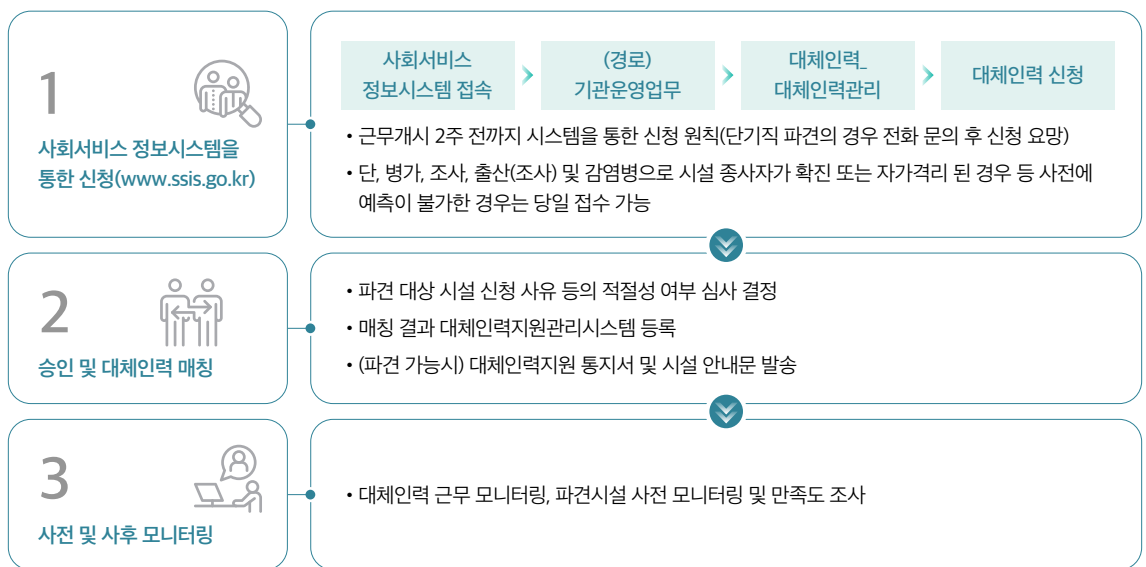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내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파견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시설에서 근무 개시일 2주 전까지 신청하면, 저희 센터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심사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을 배치합니다.

파견된 대체인력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파견 전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 이수 및 업무 가이드를 안내하여 업무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파견 후에도 출퇴근 시간, 업무일지, 근무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돌봄 현장의 인력 활용이 단순 대체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는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의 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여 준비된 인력을 파견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은 보다 안정적으로 종사자의 휴가와 교육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파견된 대체인력 역시 돌봄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는 종사자의 권리, 대체인력의 역량 강화 그리고 돌봄의 연속성을 동시에 지키며 우리 사회의 돌봄 현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방법

덕분에라는 말, 저의 원동력이에요!



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인터뷰 대상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 김경숙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대체인력 돌봄직 김경숙입니다.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해서 올해로 3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원래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대체인력 사업을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대체인력이 되었네요.

결혼하고 아산으로 이사 오던 중에 대체인력 공고를 보고 '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Q 대체인력으로서 맡는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 생활시설로 파견을 가면 이용인 세면, 목욕 보조, 식사지원 등 실제적인 돌봄 업무를 주로 맡습니다. 이용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프로그램 보조, 외출 보조, 문화 활동 보조 등 장애인분들의 학습·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아동시설에서는 놀이와 학습 지도, 생활 지원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기관마다 일정표가 다르고, 아동시설과 장애인시설의 분위기와 업무가 완전히 달라서, 파견 전에는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하게 돼요.

Q 매일 바뀌는 근무지와 업무로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A 맞아요. 첫 1년은 매년 새로운 기관, 새로운 환경이라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같은 기관이라도 담당자나 동료가 바뀌면 분위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날그날 눈치껏 배우고 적응해야 했죠.

그런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각 기관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동료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요령도 생기고, '아, 이제는 어디를 가도 바로 적응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Q 현장에서 힘들었던 점은요?

A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중증 이용인분들을 케어할 때는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기저귀 갈기나 목욕 보조 같은 건 처음엔 낯설어서 어려웠죠. 기관마다 업무 방식이 다르니까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Q 대체인력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A 저는 '덕분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선생님 덕분에 반차를 쓸 수 있었어요'라고 말해주실 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을 은행나무길에서 산책하다가 다른 기관 이용인분들이 이름은 몰라도 '선생님'으로 알아보고 따뜻하게 인사해주었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대체인력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와 성장을 느끼셨나요?

A 여러 기관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경험과 인맥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성적이고 소심했지만,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대인관계도 넓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삶이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대체인력 선생님이 오시면, 교사는 쉴 수 있고 식구들은 더 많이 웃습니다.



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인터뷰 대상

온유한집 생활재활 교사
이강현, 안소연, 이진하

Q 기관 및 담당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아산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들입니다.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각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10여 년 전 원장님과 국장님이 설립하셨고, 현재 25명 정원에 2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시설의 특성상 서로 협력하며, 이용인분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Q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청한 이유는?

A 저희처럼 소규모 시설은 교사 수가 적어, 누군가 휴가를 가거나 외부 일정이 생기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대체인력 선생님이 오시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도 쓸 수 있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아 정말 든든합니다. 예전에는 휴가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어요.

Q 대체인력 파견 후 달라진 점은?

A 자주 오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식구들도 금세 친해지고, 우리 교사처럼 대합니다. 예를 들어, 동진 씨가 경숙 선생님에게만 조용히 귓속말을할 정도로 신뢰가 쌓였어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니 매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도 척척 알아서 해주셔서 저희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식구들도 더 편안해하고, 시설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저희가 외부 활동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식구들도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에게 바라는 점은?

A 기저귀 케어나 목욕 등 돌봄 업무에 대한 경험과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선생님이 오시면 저희도 든든하고, 식구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분이 오시면 저희가 더 챙겨야 해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은 업무 난이도가 높아, 관련 교육이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Q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장점은?

A 교사들의 휴식이 보장되고, 업무 공백이 최소화됩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가려면 눈치가 보였는데, 대체 선생님이 계시면 동남아나 베트남까지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대체 선생님이 오시면 산책이나 외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고, 식구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 선생님이 오신 날은 2~3명 더 데리고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나갈 수 있어 식구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경숙 선생님이 자주 오시다 보니 식구들이 우리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식구들이 먼저 다가와 반가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대체 선생님이 오신 날은 저희가 외부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식구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바라는 점은?

A 남성 인력 확대, 주말 및 공휴일 파견 확대, 그리고 더 많은 기관에서 대체인력 지원을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시설은 외부 노출을 꺼려 신청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체인력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A 대체인력 지원 덕분에 교사들이 휴가나 외부 일정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다른 기관에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인들에게도 대체인력 사업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일하며 만난 돌봄의 순간마다, 저도 함께 배우고 성장했어요.



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인터뷰 대상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 이혜신

❶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대체인력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에서 돌봄직 대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혜신입니다. 2019년 3월에 사회복지사로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일하면서 대체인력으로 오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업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체인력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여러 기관을 돌보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아오고 있죠.

❷ 대체인력으로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정말 다양해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아동부터 장애인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죠. 아동시설에서는 학습이나 놀이 지도, 배식, 기본 돌봄을 많이 했고, 보육시설에선 가정생활 지원을, 장애인 시설에서는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고 식사, 양치

도와드리고, 태블릿 사용법도 알려드리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특성도 다르고, 이용자분들의 필요도 제각각이라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가고 있어요.

❸ 대체인력 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보람된 순간이 있으신가요?

A 오랜만에 방문한 기관에서 이용자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참 따뜻해요. 2년 반 만에 다시 뵈었는데 연락도 계속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죠. 제가 팔찌 만들거나 우크렐레 연주 같은 프로그램도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런 활동들이 저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분의 소원이 눈을 맞아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선생님들은 워낙 바쁘셔서 이런 욕구까지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한 뒤 감기 등 건강 문제를 고려해 무릎 담요와 머플러로 따뜻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소복하게 쌓인 기관 주변을 휠체어로 산책시켜드렸습니다. 눈을 문쳐 촉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제가 걸을 때 나는 소복소복한 눈 소리도 들려드렸습니다. 휠체어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지만, 20여 분 동안의 산책이 그분 인생에서 큰 감동이 되었다고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 사실은 저 역시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감동과 힐링을 받았고,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마다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❹ 반대로, 업무를 하면서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도 있나요?

A 물론 있죠. 1대1 케어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께 커피를 타드렸는데, 제가 물 양을 잘 맞추지 못해서 커피가 너무 싱거웠어요. 그분은 빨대로 한 번에 원샷 하시더라고요.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새삼 느꼈죠. 그런 세심한 배려를 충분히 못 하는 현실이 아쉽고 마음이 무거워요. 또 방문했을 때 이용자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 계신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❺ 시설 유형별로 업무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맞아요, 기관별로 하는 일이 정말 달라요. 아동시설은 주로 놀이랑 학습 지도 중심이고, 장애인 시설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프로그램 동행, 식사·양치 보조 같은 실질적인 도움까지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기관리와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❶ 대체인력으로 활동하시면서 성장한 부분?

❶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증 장애인 시설에 파견됐을 때는,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낯설고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이용인들을 만나면서, 제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해하게 되면서 도전적 행동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도 두렵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몰라서 두려웠던 것이었고, 경험을 통해 인식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❷ 대체인력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나요?

❶ 이 사업이 인력 공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사업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인력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일, 그리고 연차나 반차 사용의 유연성 같은 처우 문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 발전해서 돌봄 현장이 한층 더 따뜻해지고 안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Interview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 대체인력이 지켜주는 행복한 일상



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인터뷰 대상

계룡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박은빈 센터장

❶ 계룡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❶ 저희는 계룡시에 유일한 장애인 거주 시설로, 이용인은 12명, 종사자는 저를 포함해 6명뿐인 소규모 시설입니다.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처음 개소식 때 "가장 아름다운 시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용인들이 하루를 즐겁고 예쁘게 지내는 걸 보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장 기쁩니다.

❷ 시설의 분위기나 운영 방식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❶ 저희 시설은 일반적인 거주시설과 달리 폐쇄적이지 않고 오픈된 분위기입니다. 인근에 식당가도 많고, 이용인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며 헬스장, 배드민턴, 노래방,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권 강사님도 방문 후 "이웃님들 표정이 살아있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이용인들이 마당에 나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나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1:1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항상 선생님이 동행하고, 카페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과 이용인들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❶ 대체 인력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❶ 안내를 받고 신청하게 됐어요. 당시 종사자가 5명밖에 없어서 인력이 더 필요했죠. 대체 인력 선생님이 오시면서 연차나 장기 근속 휴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종사자가 적은 곳은 꼭 필요합니다. (03:41, 06:07)

❷ 대체 인력 지원사업 도입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❶ 예전에는 연차 사용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로 인해 종사자들이 충분히 쉬지 못하니 업무에 지치게 되었는데,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도입된 이후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사자들이 연차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모두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오전·오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수시 케어와 행정 업무를 모두 맡아야 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대체 인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 지원이 없어진다면 저희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장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❸ 대체 인력 선생님과 근무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❶ 대체 인력 선생님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시설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신중함에서 큰 신뢰가 생깁니다. 자주 배치되어 가족처럼 지내며, 이용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주셔서 현장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연차를 쓸 때 대체 인력이 오면 저 역시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와 배려가 쌓여, 대체 인력 지원사업이 단순히 인력 보충을 넘어 현장 전체의 분위기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❹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❶ 이곳에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면, 처음 약속했던 '가장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단순히 공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용인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설은 작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신뢰하는 따뜻한 가족 같은 곳입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종사자들도 숨을 돌릴 수 있고, 이용인분들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도가 더 많은 곳에 널리 퍼져, 모두가 행복한 돌봄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2

긴급돌봄 지원사업

따뜻한 돌봄의 시작 '溫돌' 긴급돌봄지원사업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긴급돌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보호자의 부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전문 인력이 신속히 가정 방문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도민 지원

긴급돌봄서비스는 긴급한 상황에 돌봄 부재 시 최대 72시간 이내(30일)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성, 단기성,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돌봄공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의 악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이 사회 전반에 드러나면서, 이를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충청남도 15개시군 지자체 및 보건소에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긴급돌봄 요청에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코로나19 파견 인력의 방역용품을 추가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방문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서비스 모니터링, 고난도 대상자 발굴 및 적극적인 자원 연계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지능력향상 워크북 배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4년 적극적 자원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시군별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제적 효과를 도모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서비스 제공시간을 최대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운영 지역을 도내 13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체사업비 편성을 통해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돌봄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강화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를 향해

- 01. 공급주체 다변화 시범사업 '홍동다움' 82
- 02.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86
- 03.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 90
- 04.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94
- 05.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96
'반짝 자립 통장'

PART 5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 ‘홍동다움’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주민주도형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홍동다움’

컨소시엄 구성 확대를 통한 서비스 범위 및 접근성 강화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3년부터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업인 「홍동다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개 컨소시엄 기관으로 출발하여 2025년 현재 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기관으로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성기관으로는 꿈이자라는뜰사회적협동조합(농업·장애), 햇살배움터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교육·청소년),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마을택시·노인), 브레인퍼즐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언어·미술치료·아동·청소년), 새론가족심리상담센터 (성인·가족상담), (주)클린환경센터(청소·방역)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동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협력을 통해 컨소시엄을 매년 확대해 왔으며, 위기가구 발굴 시 필요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방역 분야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여 구성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서비스 기획 ‘수요일만 마을택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교통·이동 불편 욕구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에 운행하는 마을택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자가용 미보유 주민은 이동 제약으로 인해 생활 필수 공간을 방문하거나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 심화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홍동면의 마을기업인 마을활력소가 본 사업의 구성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택시는 2024년 기준 매주 수요일 30회 운행되었으며 총 318명의 주민이 이용하였고, 주요 방문지는 ▲병원, ▲농협, ▲미용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수 이용자 중 한 분인 김○○ 어르신은 “일주일에 두 번 운행해주면 안 될까요?”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후 면소재지 방문을 위해 걸어 다녀야 했으나, 마을택시



덕분에 장을 보고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홍동다움 ‘마을돌봄 프로젝트’

2025년부터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홍동면 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례발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화상담소를 운영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수·상담 이후에는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홍동다움」 서비스 내 연계 자원과 공공복지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통한 컨소시엄 성장

「홍동다움」 서비스에 참여한 구성기관 중 1개소는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규 설립하였으며, 또 다른 1개소는 현재 컨설팅을 진행하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영모델 수립을 통한 확산 기반 마련

건강리더, 어르신학교 서비스는 충남도 내 8개 읍·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표준운영모델 매뉴얼을 수립하여 지역 확산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분	컨소시엄 서비스 제공	컨소시엄 성장지원 사업
2023년	컨소시엄 서비스 제공 271회	- 컨소시엄 성장지원 교육 등 7회 - 네트워크 구성 관리 17회 - 성과확산 및 홍보 11회
2024년	- 컨소시엄 공급자 교육, 책자 발간 등 6회 - 자조모임 등 지속가능 방안 마련 117회 - 컨소시엄 서비스 제공 등 493회	- 컨소시엄 운영관리 14회 - 컨소시엄 성장지원 교육 등 9회 - 홍동다움 효과성 연구 1회 - 네트워크 구성 관리 9회 - 성과확산 및 홍보 12회
2025년	- 공통업무 운영모델 마련 9회 - 지속가능방안 마련 138회 - 서비스 개발 및 제공 148회	- 컨소시엄 운영관리 4회 - 컨소시엄 컨설팅 3회 - 표준운영모델 마련 19회 - 컨소시엄 활성화 19회

271 회 | 35 회
서비스 제공 | 성장지원 사업

616 회 | 45 회
서비스 제공 | 성장지원 사업

295 회 | 45 회
서비스 제공 | 성장지원 사업

우리 지역의 일상에 스며든 돌봄, 홍동다움사업의 현장 목소리



관련사업

홍동다움

인터뷰 대상

이은주(월현리 부녀회장)

❶ 어떤 계기로 홍동다움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이용하게 되셨나요?

▶ 저는 유관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홍동다움 리플렛을 통해 처음으로 홍동다움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요일에만 운행되는 마을택시를 마을 주민들에게 이용 안내 하면서 본격적으로 홍동다움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신가요?

▶ 서비스를 이용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건강리더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건강리더가 휴무였을 때, 평소 좋아하시던 요구르트를 직접 구입하여 어르신 댁을 방문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2주에 한 번 찾아뵙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마을 주민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찾아뵙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부를 나누고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르신께는 중요한 교류가 되고, 저 역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억됩니다.

❸ 앞으로 홍동다움 서비스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다만, 아쉬운 점은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홍동다움 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조례나 정책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내년부터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후원금 등을 통해 한 해 더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나 정책 제도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동다움, 우리 지역 활동가가 전한 경험



관련사업

홍동다움

인터뷰 대상

최문철(꿈이자라는뜰 사회적협동조합)

❶ 꿈이자라는뜰이 홍동다움 컨소시엄에서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꿈이자라는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문철 조합장입니다. 지역에서는 '보루'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합은 주로 장애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측면에서는 장애·비장애 청년 농업 인턴십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홍동다움 내 「꿈이 자라는 뜰」 활동을 정리하고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 옹호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자조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❷ 대표적인 성과 또는 좋았던 사례는 무엇인가요?

▶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에 적합한 활동과 체계를 정비해 나간 점이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특히 홍동다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 컨설팅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❸ 앞으로 컨소시엄의 협력 구조가 어떻게 발전되기를 바라시나요?

▶ 앞으로 홍동다움 컨소시엄이 느슨한 연결을 바탕으로 필요와 자원을 공유하며, 다양한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구조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참여 경험을 통해 해당 지자체와 호의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점이 큰 의미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 체계가 홍동다움 컨소시엄과 함께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02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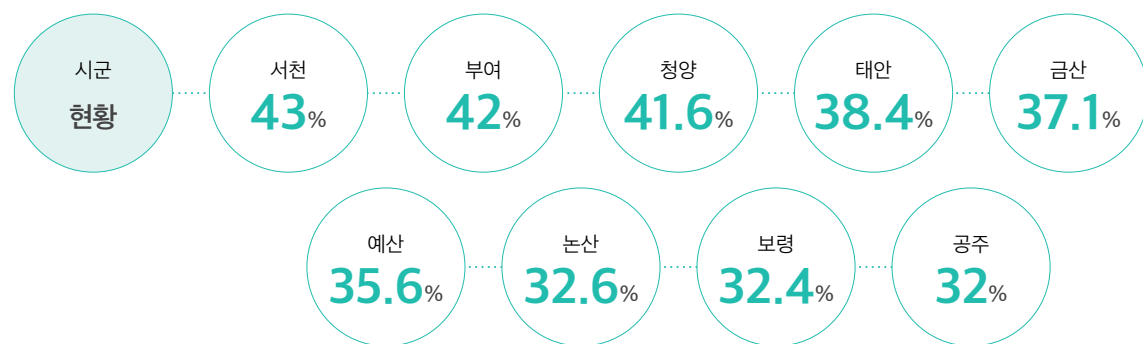
“돌봄 사각지대를 채우다 -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사업”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어떻게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중에 만들어진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은 충남의 돌봄서비스 혁신 사례입니다.

충남의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30% 이상이며, 서천·부여·청양은 4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노인 인구비율 20.5% 인 것을 보면 충남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 “홍동다움”사업의 성과를 타 지역에 확산하여 주민 주도의 돌봄 생태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노인인구 현황



(충청남도, 2025.5.)



수행기관 현판 전달식(25.7.25.)



수행기관 선정서 전달식(25.3.13.)

추진 과정 및 체계, 주요성과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의 방향은 공공 및 민간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돌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복지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연계합니다.

2024년에 도내 수행기관 4곳이 공모 사업에 선정(천안, 공주, 예산, 태안) 되었습니다.

노인 건강돌봄지도사 양성교육을 20회

추진(55명)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돌봄조직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40가구에 매주 일상의 안부를 살피고 영양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충남의 지역거점병원인 4개 의료원 사업 연계하여 건강교육을 진행하였고협력기관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사전 69.03점에서 사후 조사가 87점으로 무려 17.97점 향상되며 실질적인 변화를 입증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안부 확인을 넘어서 정서적 교류와 돌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5년에는 도내 수행기관 5곳 공모 사업 추가 선정(아산 2곳, 부여 2곳, 보령) 하여 수행기관 8곳 총 80명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교육을 25회 추진(55명)하고 자원활동에 82명 참여 중입니다. 현재 고립가구 방문 25회, 어르신 학교 25회, 수행기관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장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를
향해



고립가구 방문 - 꾸러미 전달



고립가구 방문-일상안부 나눔



참여자 소감

천안의 돌봄조직 이○재 선생님은 무릎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안○자 어르신을 매주 방문하며 반찬·식자재·꽃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는게 너무 고맙다”며 이 돌봄 활동이 삶의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돌봄조직은 “이 활동을 통해 나 역시 가치있는 존재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봄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 돌봄 사업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상호 관계 회복과 공동체 성장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어촌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 주도형 돌봄 모델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민·관·주민 간 협력 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참여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성과와 경험은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가능한 돌봄모델로서 향후 유사 정책 개발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03

장애인지역사회자립 지원시범사업단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의 시작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충남 최초로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시범사업」을 서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에 머물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고, 주거와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자립을 향한 첫 걸음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주택 등 활용)를 지원하고 자립대상자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방안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자립과 동시에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준비하고 개별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보완 등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환 후에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건강, 관계 형성 등 정착 상황 등을 일일



모니터링 하며, 매월 말 주택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점검, 자립상황, 건강상태, 주거 생활 등을 모니터링 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한 욕구 변화와 서비스 변경 계획 여부 등을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립 이후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영화 관람, 마라톤 대회 참가, 종교활동, 문화 프로그램 참여 등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경험할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대상자들이 점점 지역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대상자의 적성이나 취미를 발견하여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자립대상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다수가 원하는 수업을 선정하여 서산시 평생교육 ‘장애인 학습부르미’신청으로 커피 브루잉(핸드드립) 수업을 매주 1회 2시간씩(10회 예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의 완성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소질이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고 취업으로 이어질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합니다. 한잔의 커피가 새로운 직업과 삶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고정에는 불안도 뒤따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범치는 사회 초년의 자립대상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서산경찰서와 연계하여 현직 경찰관이 직접 찾아와 자립대상자와 활동보조사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수법을 알리고 대응방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차단앱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은행의 ‘여신거래안심타단 서비스’, ‘통신사의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등 각종 예방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도록 돕고,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첫 여성 자립대상자의 경우 자립 초기 불안과 생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의 탄력 순찰 제도를 신청하여 든든한 보호망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발자취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현재까지(2025.9월 말 기준) 서산시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21명의 자립희망자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5명은 이미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립대상자 현황

구분 김○○ 성별, 연령대 남, 40대 등록장애유형 지체(심한장애) 자립 전환일 2023.5.2.	소득 활동 • 동료상담사 • 자립생활 교육 강사 활동 • 지역사회자립생활 멘토 사회활동 • 론볼 • 보치아 • 충남복지위원활동 • IL센터 운영위원 활동 • 종교활동 • 자조모임 서비스 연계등 • 자립주택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신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자립정착금 지급 • 보조기기 (전동 및 수동휠체어) •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효율화개선사업지원 • 의료(취약계층 건강돌봄 지원) • 푸드뱅크 • 문화바우처 신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
구분 최○○ 성별, 연령대 남, 40대 등록장애유형 뇌병변(심한장애) 자립 전환일 2023.7.3.	소득 활동 • ○○직업재활원 근로 사회활동 • 문화·여가활동 (공연·전시 관람) • 종교활동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 연계등 • 자립주택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신청 • 자립정착금 지급 •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 • 자립정착금 • 건강주치의및 취약계층 건강돌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산의료원 (언어치료, 물리치료) • 푸드뱅크 • 장애인운전면허 취득 지원
구분 신○○ 성별, 연령대 남, 30대 등록장애유형 지적(심한장애) 자립 전환일 2023.9.25.	소득 활동 • ○○직업재활원 근로 사회활동 • 문화·여가활동 (공연·전시 관람) • 종교활동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 연계등 • 자립주택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신청 •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 • 자립정착금 지급 • 건강주치의및 취약계층 건강돌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푸드뱅크
구분 김○○ 성별, 연령대 남, 30대 등록장애유형 지적(심한장애) 자립 전환일 2024.1.30.	소득 활동 • ○○직업재활원 근로 사회활동 • 제31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조정 경기 참가) • 문화·여가활동(공연·전시 관람) • 종교활동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 연계등 • 자립주택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신청 •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 • 자립정착금 지급 • 건강주치의및 취약계층 건강돌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푸드뱅크
구분 박○○ 성별, 연령대 여, 30대 등록장애유형 지적(심한장애) 자립 전환일 2025.7.15.	소득 활동 • 직원재활원 훈련생 사회활동 • 제31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여자역도 3위 수상 • 문화·여가활동(공연·전시 관람)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 연계등 • 자립주택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장애인활동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 사회보장급여신청 • 발달장애인 자산관리 신탁 • 공공후견인신청 • 에너지 바우처 • 자립정착금 • 건강주치의및 취약계층 건강돌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미래

시범사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재가 장애인 발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모형 세분화에 따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대상자별 모형에 따라(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지원하고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 입소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기적인 자립육구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포용적인 공감대를 형성 할 것입니다. 홍보와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자립대상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자 미래입니다.

04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민·관이 함께 만드는 충남형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시작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사회서비스 주요 분야별 정책 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광역-기초 간 연계와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광역 지자체 사회보장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둔 사례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전국 세 번째이며, 도-공공기관 협력사업 형태로 운영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7개 분과 중심의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전문성과 균형 확보

실무협의회는 총 7개 분과(지역복지, 노인, 장애인, 청년·중장년, 출산보육, 아동, 여성가족·청소년)로 구성되었으며, 공공 7명, 민간 42명 등 총 49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공공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 위원으로는 분과 관련 충청남도 해당 부서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위촉되며, 민간 위원은 복지관련 시설, 단체 종사자 및 학계,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분과는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현장 인력을 균형 있게 포함함으로써 정책 논의의 깊이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주요 기능은 복지현안 논의, 합의, 토론, 정책안 마련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조직구성



2023년 12월에 제1기 위원을 모집하였고, 총 7개 분과 3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는 관 주도 복지행정에서 도민의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 구현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범(犯) 도정 복지 협의 체계 구축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위원 역량강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7개 분야 82개 정책우선순위 의제를 발굴하여 도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타·시도 사례 학습과 유관기관 교류를 위한 벤치마킹 및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여 실무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은 본격적으로 분과회의를 운영하는 해로 7개 분과별 연 4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분과에서 도출된 의제는 도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충청남도 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05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 자립 통장’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 자립 통장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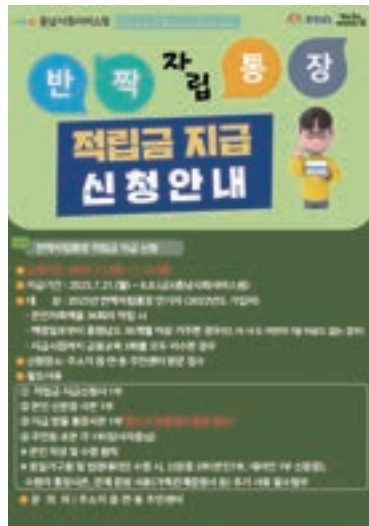
미래자산을 위한 반짝 자립 통장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 자립 통장’은 본인의 저축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매월 150,000원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기간에 의미 있는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주거 안정, 교육·직업훈련, 의료비, 창업자금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역량을 키우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참여자는 사업 기간 동안 금융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저축·투자 계획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022년도부터 중증장애인의 빈곤 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을 위해 미래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으며 2022년 총 91명, 2023년 90명, 2024년 81명, 2025년 91명이 통장을 개설하였고 현재 338명이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 반짝 자립 통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장개설 후 자자체를 통한 입금모니터링을 통해 통장관리를 실시하여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내 힘으로 모은 자산’이라는 성취를 경험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로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거 문제 해결, 직업 훈련 및 창업 준비, 의료비 충당 등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교육 진행

안정적인 금융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매년 충청도 내 NH농협과 연계하여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NH농협 은행 천안시지부 및 충남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2024년에는 비대면 유튜브 강좌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과 자산관리, 반짝자립통장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 피해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1년~2025년
서비스지원실
주요 수행 사업



부록
• 서비스지원실
주요 수행 사업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소속시설 현황(2019~현재)			
국공립 시설	국공립 위탁사업		종합 재가센터
	•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1호점(2020.09.10.~) • 신관다함께돌봄센터(2020.11.10.~) • 신월다함께돌봄센터(2020.11.10.~) • 공립더베스트에미지어린이집(2021.03.01.~) • 당진라온(2021.09.24.~) •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2021.10.21.~) •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2021.10.26.~) • 서천도담(2021.12.23.~) • 계룡다솜어린이집(2022.03.01.~) • 유구다함께돌봄센터(2022.05.01.~2024.12.31.)		• 부여공동육아나눔터(2020.09.10.~2023.12.31.) • 규암공동육아나눔터(2020.09.10.~2023.12.31.)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020.01.01.~) •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2021.01.01.~)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2021.01.01.~2023.12.31.) • 태안군아이키움터(2021.06.21.~2024.06.20.) •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2022.09.08.~)



지난 2020년 복지현장에 새롭게 들어선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때로는 과연 필요한가? 라는 물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의문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실험하고, 적용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의 공백을 메우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며,
 비로소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의 길 위에 서겠지만,
 충남도민과 사회복지현장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의 신뢰와 돌봄의 마음을 지키며,
 더 따뜻하고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사회서비스를
 지탱하는 힘,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사람들



마무리



충남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 5주년 사업백서:

함께 걸어온 5년, 더 나은 돌봄을 향하여

발행년도 2025년

발행인 김영옥

발행처 충남사회서비스원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 5층
041-330-2400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41-631-7783

※ 사전 승인 없이 사업백서 내용 및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